전남대사대부고·부산대사대부고 영·호남 교류

"5·18과 부·마민주항쟁 역사 배우며 친구 됐어요"

12년째 만남…1박 2일 '5·18 30주년' 수련회

"광주시민들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5·18민중항쟁'과 부산·마산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싸운 '부·마(釜馬)민주항쟁'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어요."

전남대사대부고와 부산대사대부고 학생들은 1일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주제로 한 수련회에서 "5·18 민중항쟁과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통해 광주와 부산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12년째 영·호남 교류행사를 맺고 있는 전남대사대부고와 부산대사대부고는 1~2일 이틀동안 광주와 전남일원에서 1박 2일간 5·18 30주년을 주제로 수련회를 열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두 학교의 영·호남 수련회는 '영·호남이 하나일세'란 말을 줄여 '하날세'란 행사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학년 학급 반장과 부반장, 생활부 반장 등 각 30명씩, 모두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학생들은 저녁식사 후 5·18 민중항쟁과 부·마민주항쟁을 주제로 토의·토론회를 열었다.

전남대사대부고의 이현일군은 "이번 수련회를 위해 광주와 부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1980년 5·18과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두 항쟁 모두 국민을 괴롭히는 정권에 맞서 시민들이 항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군은 "부산 친구들이 오면 광주와 부산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역사적 동일성을 발견한 이후엔 멀게만 느껴졌던 영남친구들이 매우 친근해 졌다"고 덧붙였다.

부산대사대부고 1학년 9반 반장인 성윤지(여)양도 "그동안 5·18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히 '무섭다'는 이미지만 떠올랐는 데, 이번 행사를 통해 5·18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대사대부고 곽대훈 교장은 "세계를 무대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매년 영·호남 교류 행사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사대부고 학생들은 행사 둘째날인 2일에는 무등산 등반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사대부고에서 열린 영호남 교류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자랑스런 치호인 상' 3명 선정

조선대 김수관 치대학장·최병기 치과원장·송병춘 서울 로덴치과 원장 등 3명이 최근 조선대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 및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제1회 자랑스러운 치호인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 선정된 김수관 원장은 치과 임프란트, 골 이식술, 악교정수술, 레이저, 골신장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현저한 공헌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봉사부문'에 선정된 최병기 원장은 1987년 치과대학 졸업 후 10년 넘게 매년 몽골, 태국으로 의료봉사를 다니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얼마 전 아이티 지진피해 돕기에도 큰 성금을 희사했다.

'공로 부문' 송병춘 원장은 조선대 치대에 발전기금 2억300만원을 쾌척했으며 고향인 영암군민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고향 후배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교 3년생 진로 찾고 미래 모색

광주전자공고 '꿈찾기 프로그램' 큰 호응

광주전자공고가 고 3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꿈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전자공고는 최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꿈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외부강사가 초청돼 6인 1조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선 '마음열기 및 성격분석', '자신의 능력알기', '꿈을 위한 실천계획' 등 8개 주제가 주어졌으며 학생들은 '개인별 파워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막연히 대기업 입사나 대학진학 등을 계획해 왔던 학생들은 8개 주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내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함께 실천계획도 세웠다.

디지인과의 한 학생은 "그동안 별다른 목표없이 살아왔는 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 학교 김신석 교사는 "뚜렷한 진로설정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고교생활의 마지막 1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생활 적응 못한 학생 대안교육

광주에 '위(Wee)스쿨' 문 연다

광주에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게 될 '위(Wee) 스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9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교육을 책임질 위스쿨인 '돈보스코 학교'가 개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위탁 운영기관은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이사장 남상헌 신부)로 창립자 이름을 딴 돈보스코 학교로 명명됐다. 이 학교는 정부의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 Education Emotion.Wee)에 따라 24시간 상담 기구인 위-센터,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클래스를 거친 마지막 단계로, 고교생 중·장기위탁 대안교육시설이다.

폐교된 옛 하남초교에 둥지를 마련했으며 30억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기숙사와 교사 신·증축 등을 마쳤다. 정원은 고교 1, 2학년으로 학급당 15명, 3개반으로 모두 90명이며 학교장 추천과 학생 희망을 받아 다양한 가족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신대 농촌 관광 전문가 키운다

6월부터 양성과정 개설

동신대학교가 농촌 관광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농업인재개발원이 공모한 농업교육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돼 오는 6월 농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접목한 농촌 관광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의 총괄 책임자인 송문갑 교수(호텔관광학과)는 "농촌 관광은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상품이 획일적이어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촌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농촌파티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과정 개설 배경을 소개했다.

사업단이 지향하는 농촌파티는 농촌 문화 예술 체험 등을 통해 21세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 단위 농촌 관광 서비스 수준을 높여 농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캠퍼스 소식

순천대 지역기업인 등 2명 名博 학위 수여

강문식 대표

조순용 위원장

순천대학교(총장 장만채)는 1일 교내 70주년 기념관에서 지역 벤처기업인 (주)파루 강문식 대표와 조순용 DMB특별위원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순천대는 WCU(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사업 선정과 전남 동부권 약학대학 유치에 따른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 학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두 사람에게 각각 공학박사, 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주)파루 강문식 대표는 2005년부터는 순천대와 협력해 국내에서는 선구적으로 인쇄전자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순천을 한국 인쇄전자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

강 대표는 특히 유망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광양만권 u-IT연구소 및 순천대 지역혁신센터(RIC) 산업체로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에 꾸준히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순용 DMB특별위원장은 지역 사회와 대학의 협력의 매개자로 순천대학교 약대 설치에 기여했고, 전남 동부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남대 로스쿨 학술지 '전남로저널' 창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학생 학술지인 'Chonnam Law Journal(전남로저널)' 창간호를 발행했다.

전남로저널(지도교수 정종휴·정영진 교수)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취재·편집 등 인쇄를 제외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든 학생 학술지다. 성공적인 로스쿨 생활과 창조적인 로스쿨 문화의 창달을 위해 발간된 전남로저널은 기존의 학술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매년 2회 발행한다.

이번 창간호에는 변호사 시험안 및 로스쿨 생활과 관련한 스페셜 리포트와 중국법 칼럼 '인치와 법치의 논쟁을 중심으로', 법학의 시각으로 바라본 종교칼럼 '법과 종교 그리고 어울림', 일본 와세다 로스쿨 탐방기 등 다양한 주제의 담론이 실렸다.

조선대 베트남 세종한국어학당 3기 수료식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가 베트남 제1의 상공업도시 호찌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한국어학당이 2일 국립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강당에서 '제3기 수료식'을 갖는다.

베트남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보 반 샌 총장과 응오 반 레 한국학센터 소장, 조선대학교 이상열 부총장, 최한용 어학교육원장, 김상윤 주베트남 호찌민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수료식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반을 수료한 28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조선대학교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지난 2008년 10월 9일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에 세종한국어학당을 건립, 현재 200여명의 수강생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으며 연간 2기로 운영된다.

특히 세종한국어학당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으로부터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종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4천만원씩 3년간 총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화/안/내

영화에빠지다

메가박스

M관	타이탄 (12세) 최고급관
2관	타이탄 (12세)
3관	그린 존 (15세)
4관	서더 아일랜드 (15세)
5관	(3D)타이탄 (12세)
6관	솔로몬 케인 (18세) 비밀애(18세)
7관	폭풍전야(18세)
8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9관	타이탄 (12세)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런던외국사거리 ♡예매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폭풍전야 (18세)
2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전체) 솔로몬 케인 (18세)
3관	레이징 피닉스 (15세) / 무법자 (18세)
4관	그린 존 (15세)
5관	비밀애(18세)
6관	(3D)타이탄 (12세)
7관	타이탄 (12세)
8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9관	타이탄 (12세)
10관	타이탄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레이징 피닉스(15세)/콜링 인 러브(15세)
2관	그린 존(15세)
3관	솔로몬 케인 (18세)
4관	의형제(15세)
5관	비밀애(18세)
6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전체)
7관	타이탄 (12세)
8관	타이탄 (12세)
9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10관	폭풍전야(18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8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2관	서더 아일랜드 (15세)
3관	타이탄 (12세)
4관	데이브레이커스 (18세) / 비밀애(18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8세)
5관	그린 존 (15세) / 콜링 인 러브 (15세)
6관	(디지털 4K)타이탄 (12세)

씨너스 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쾌할했는 영화산책 • www.cirnus.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타이탄 (12세)
2관	타이탄 (12세)
3관	그린 존 (15세)
4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5관	비밀애(18세) / 의형제 (15세)
6관	솔로몬 케인 (18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대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중장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